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mL 중

- 유험성분: 라코사미드(별규) ..... 10mg
- 용제: 주사용수(KP) ..... 적량
- 기타첨가제: 염화나트륨, 염산

[성상]

무색투명한 액이 무색투명한 유리 바이알에 든 주사제

[효능·효과]

16세 이상의 간질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기요법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이 약은 1일 2회 투여해야 한다. 초회 권장량은 1일 2회, 1회 50mg이며, 1주 후 1일 2회, 1회 100mg으로 증량해야 한다. 임상반응 및 내약성에 따라, 유지량은 매주 1일 2회, 1회 50mg씩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 권장투여량은 1일 400mg(1일 2회, 1회 200mg)이다.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점차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권장된다.(예: 1일 투여량을 매주 200mg씩 점차 감량투여함)

라코사미드 투여는 경구 또는 정맥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주사제는 1일 2회 30~60분간 정맥주입한다. 주사제는 희석하지 않고 정맥으로 투여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다. 1일 총 투여량 및 1일 2회 투여는 유지하여야 한다.

5일까지 주사제를 1일 2회 투여한 경험이 있다.

• 신장애 환자

경증 및 중등증의 신장애에 환자( $CL_{CR} > 30mL/\text{분}$ )에서 이 약의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 $CL_{CR} \leq 30mL/\text{분}$ )와 말기 신질환 환자에서는 1일 300mg의 최대 투여량이 권장된다. 이 약은 혈액투석에 의해 혈장에서 제거되므로, 혈액투석환자는 혈액투석 직후 1회 투여량의 최대 50%까지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말기 신질환 환자의 치료는 임상 경험이 적고 대사체(약리학적 활성이 일려지지 않은)의 죽적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든 신장애 환자에서 용량 조절은 신중히 해야 한다.

• 간장애 환자

간장애 환자에서 용량 적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 경증 또는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1일 300mg의 최대 투여량이 권장된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 고령자

고령자에서 용량 감소는 필요하지 않다. 간질이 있는 고령자에서 라코사미드의 사용경험은 제한적이나, 신 청소율 감소 및 AUC 수치 증가는 나이와 관련이 있으므로 고령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신장애 환자·환자·환자·환자·환자)

• 소아

이 약은 소아 및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연령대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화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을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주성분 또는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過민증인 경우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어지러움: 라코사미드의 투여는 어지러움과 관련되어 있어 우발적 손상 또는 낙상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약의 가능한 영향들에 의숙해질 때까지 주의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이상반응 항 첨조) 어지러움, 운동실조와 같은 중증신경계 이상반응을 비롯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하용량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학적 감독 하에 투여해야 한다.

2) 심장전도 및 심장박동 이상: 임상시험에서 라코사미드에 의한 PR 간격 연장이 관찰되었다. 라코사미드는 진도 장애 환자 또는 심근경색 또는 심부전 병력 있는 중증의 심장 질환 환자에서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이 약 투여 시작 전 심전도(ECG)를 관찰한 후에 항정상태까지 용량 적정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심장질환의 증가된 위험이 있는 고령자에게 투여할 때나 PR 간격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나트륨통로차단제, 항간질제 등) 또는 심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나트륨통로차단제, 베타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칼륨통로차단제 등)과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한다.

2도 이상의 방실차단이 시판후조사에서 보고되었고 심박세동 또는 조동이 간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우여대조 임상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공개임상시험과 시판후조사에서 보고되었다. (이상반응 항 첨조) 환자에게 2도 이상의 방실차단의 증상(예: 느리거나 불규칙한 맥박, 어지러움, 기침과 심박세동 또는 조동의 증상(예: 두근거림, 빠르거나 불규칙한 맥박, 짧은 호흡)에 대해 주지시키고, 이러한 증상이 발현될 경우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비롯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하용량이 임상적으로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학적 감독 하에 투여해야 한다.

3)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항간질약이 우울증의 징후 및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 비정상적 기분과 행동의 변화,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또는 자아충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려 환자에게 이

러한 증상 또는 행동이 발현될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를 보인다. 11종의 다른 항간질약을 사용하여 199개의 위약-대조 임상시험(단독요법과 부기요법)을 분석한 결과 항간질약 복용환자는 위약 투여환자와 비교시 약 2배의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의 위험을 보였다. 12주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행동 또는 자살충동 발생율은 27,863명의 항간질약 치료환자에서 0.43%였으며 16,029명의 위약 투여 환자에서는 0.24%였다. 이는 치료받은 530명 환자 중 한명은 자살충동 또는 자살 행동을 보인 것을 의미한다. 동 액을 치료 환자에서 4건의 자살이 있었고 위약 치료 환자에서의 자살은 없었다. 그러나, 자살 예수가 너무 적어 이 약과 자살의 연관성을 결론지을 수는 없다. 항간질약 복용에 의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의 위험 증가는 악물치료를 시작 초기 1주에 관찰되었고 치료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24주 이상은 초과할 수 없었으며 24주를 초과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의 위험은 평가할 수 없었다.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위험은 분석된 11종의 항간질약에서 일관적이었다. 다양한 작용기전과 사용범위를 가진 항간질약에서의 위험성 증가는 어떤 효능으로든 사용된 모든 항간질약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 위험성은 분석된 임상시험에 서 언급(5~100세)에 따라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4) 다기관 과민 반응(DRESS: 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항간질약 투여 시 다른 기관과 관련된 열과 발진이 나타나는 다기관 과민 반응(호산구증기증, 간염, 신장, 림프절병증, 심근경 등)이 보고되었다. 이 증상은 다양하게 발현되므로 다른 기관에서 기재되지 않은 증상과 증후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이 약 투여 시 다기관 과민 반응이 의심된다면 투여를 중단하고 대체 치료를 시작한다.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부분발작 환자 1,308명을 대상으로 한 우여-대조 임상시험의 분석 결과, 라코사미드로 무작위 배정된 환자 61.9%와 위약으로 무작위 배정된 환자 35.2% 전체에서 적어도 하나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라코사미드 투여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 두통, 구역 및 복시였다. 이를 증상은 보통 경증에서 중등증였다. 몇몇 증상들은 투여량과 관련이 있어, 감량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었다. 중추신경계(CNS)와 위장관계(GI) 이상반응의 발생 빈도와 정도는 보통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모든 대조 연구에서, 이상반응에 의한 투약중단율은 라코사미드로 무작위 배정된 환자군은 12.2%, 위약으로 무작위 배정된 환자군은 1.6%였다. 라코사미드 투여의 중단을 조래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증이었다.

위약-대조 임상시험 전체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의 빈도는 아래와 같으며, 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매우 흔함(≥1/10), 흔함(<1/100에서 <1/10), 흔하지 않게(≥1/100에서 <1/100). 각 빈도 군에서는 심각성이 높은 순으로 이상반응을 기재한다.

• 정신과 장애

흡함: 우울증, 혼돈상태, 불면증, 기분변화

우울한 기분

• 신경계 장애

매우 흔함: 어지러움, 두통

흔함: 인자장애, 눈떨림, 균형장애, 협동장애, 기억손상, 떨림, 출음, 구운장애, 주의력 장애, 감기저하, 감각이상

소노증후군

• 눈 장애

매우 흔함: 겉보임(복시)

흔함: 시야흐름

• 귀 및 미로 장애

흔함: 현기증, 이명(귀울림)

• 위장관 장애

매우 흔함: 구역

흔함: 구토, 변비, 위고창, 소화불량, 구강건조, 설사

구내 지각감

• 근 괴리 및 결합조직 장애

흔함: 근 경련

•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흔함: 가려움증

•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상태

흔함: 보행장애, 무력증, 피로, 과민성, 취한 기분, 발열

• 손상, 중독 및 절차상 합병증

흔함: 낙상, 피부염상, 타박상

• 혈액 및 림프계 장애

흔함: 호중구감소증

• 심장 장애

두근거림

• 정맥터여

정맥터여시의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또는 불편감(2.5%), 자극(1%), 흥분(0.5%) 같은 국소 이상반응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경구투여시에 관찰된 이상반응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코사미드의 사용은 PR 간격에서 투여량에 따른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PR 간격 연장과 관련된 이상반응(예: 방실차단, 실신, 서맥)을 일으킬 수 있다. 간질 환자에서 1도 방실차단 발생율은 라코사미드 200mg, 400mg, 600mg, 위약에서 각각 0.7%, 0%, 0.5%, 0%로 흔하지 않게 보고되었고, 2도 이상의 방실차단은 라코사미드 투여한 환자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판후조사에서 2도 및 3도 방실차단이 보고되었다. 실신의 발생율은 흔하지 않고, 라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한 제품입니다. 만약 구입시 번지·변색·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입한 약국 및 도매상을 통해 교환하여 드립니다.

• 첨부문서 작성(개정일자 이후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www.skchemicals.com/ls](http://www.skchemicals.com/ls))나 제품상담 전용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를 주의 깊게 읽고, 첨부문서를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 의약품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udrug.mfds.go.kr)'을 참조하십시오.

•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1644-6223, 14-3330/□ karp.drugsafe.or.kr 신청대상: 의약품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 보상범위: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2019. 3. 29. 작성  
※ 2023. 10. 27. 개정  
(Ver. 004)

